

#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 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전통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se of education to train an archivist

- Focus on the archival training courses and the tradition of archival science in Italy -

김정하(Jung-Ha Kim)\*

## ◁ 목 차 ▷

|                  |                                |
|------------------|--------------------------------|
| 1 서론             | 4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
| 2 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전통 | 5 결론                           |
| 3 기록관리학의 오랜 여정   |                                |

### <국문초록>

기록들은 이전 사회의 모든 분야의 삶에 대한 기록된 흔적이자 증언이다. 기록문화유산은 보존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의 사명이지만, 특히 관리 및 보존의 임무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의 몫이다. 기록관리전문가는 단지 오래된 기록물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서들 오늘날의 역사기록물로 정의하기, 위한 미래적 안목의 평가와 선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관리학의 범위는 기록물의 생산에서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며, 내용적으로는 크게 업무 및 행정기록물관리와 역사기록물관리의 두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18세기말과 19세기초 구지도의 종말과 복원의 시대를 배경으로 원래의 질서를 상실한 채 방치된 수많은 문서들에 대한 정리작업의 필요성을 계기로 성립된 '역사기록물관리'가 기록관리학의 전통영역으로 내면된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의 심진법적 분류와 유사한 '주체별 정리방식'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기록물정리방식과 그 이론적 배경, 대규모 기록보존소의 설립, 그리고 기록물의 법직, 문화적 가치 및 활용 등의 개념들이 기록관리전문가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내용으로 규정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기록관리학이 중세문서들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문서들의 다양한 서체와 기록배경에 대한 학문적 해석을 통해서 기록물을 역사연구에 활용하려는 고문서학 및 고서체학적 전통의 보조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근현대의 기록관리는 고문서관리라는 전통영역이외에도 업무 및 행정기록물의 생산에서 등록, 분류, 편철, 활용, 선별 그리고 이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기록관리전문가의 활동영역은 기록물의 행정적 가치에서 역사, 문화적 가치에 이르는 전과정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록관리학에 대한 기본교육의 핵심은 역사와 법으로 구성된다. 기록관리전문가에게 법연구가 필요한 것은 기록보존소가 법적 행정적인 활동으로 생산된 문서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비록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위를 취득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기능성 차원에서 역사관련 학문분야를 선호하며, 기록관리전문가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의 보편적인 태두리를 갖기 위해 법학연구도 강조되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록보존소가 문화기관에 예측되는 경향이 우세해져 행정기관들이 기록보존소를 관리하던 과거의 전통에 대한 반발이 커지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은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 교육은 토리노, 밀라노, 베네치아, 베노바, 발로나, 파르마, 로마, 나폴리, 팔레르모

\* 기록관리학 박사, 원광대 강사.

등 대략 9곳의 국립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고서체학과 고문서학 강의가 대부분이었으며, 여전히 기록관리학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 1884년에 바티칸의 미밀기록보존소는 '고서체학 교육과정'을 설치하였으며, 이 과정은 40년 후인 1923년에야 1년 단위의 기록관리학 과정으로 재편성되면서 명실상부한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말 20세기에 접어들면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은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관리학이 재차 강조되었다. 특히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에 대한 기록관리학의 우월을 강조하는 카사노바의 소신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그는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이 모두 필수적이며, 문장학, 가계학, 그리고 인장학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완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록보존소의 모든 기록들이 고서체학자와 고문서학자 등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모든 문서들은 기록관리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록관리학의 목적은 기록보존소에 기록물을 이관한 제도와 기관들을 연구하고, 관리들이 어려움없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고 각 기관들의 고유한 업무절차와 업무분담에 대한 무지속에서 헤매지 않고 자신들의 할 일을 분명하게 알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문서를 생산한 기관과 제도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미 몇십년부터 기록관리학의 한분야로 자리잡았다.

기록관리학이 많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학문으로서의 길고 어려운 여정을 겪는 동안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기록보존소들은 역사를 비롯한 타학문가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록관리학의 비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많은 폐단을 겪게 되었다. 많은 기록물들이 도서관 사서들의 방식과 스타일에 따라 혹은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주제별 분류방식에 따라 정리되었기 때문에 자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마련된 기록물의 본래의 구조 즉 원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20세기 미국의 경우에도 도서관에 관련된 학문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었지만, 기록관리학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은 1925년 로마 국립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원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대학의 기록관리교육은 역사, 법, 경제에 대한 연구속에서 성립되었지만 에우제니오 카사노바와 조르지오 켈체티와 같은 인물들의 기록관리학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 국립기록보존소들에 기록관리교육이 정식 전문교육과정으로 정착되었다.

볼로냐 국립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의 전문교육과정'은 이탈리아의 17개 국립기록보존소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들 중의 하나이다. 본 교육과정은 듀표이며, 2년동안 8개의 과목(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고문서학, 기록보존소의 역사, 공증인제도와 사문서, 중세의 제도사, 근대의 제도사, 현대의 제도사 등) 중에 7개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년의 학위과정은 2회의 필기시험과 1회의 구두시험으로 마감된다. 최종시험성적이 문화환경부에 의해 종합되면 볼로냐 국립기록보존소의 소장은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들에게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학위'를 수여한다. 이 학위증은 도, 지방 그리고 지방의 행정수도에 위치한 기록보존소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도시의 조합기록보존소 및 다른 기관들의 기록보존소에 근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격조건을 구성한다.

바티칸의 기록보존소에서 교수되는 내용은 다른 교육과정들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서 독립된 영토단위와 영적,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였던 관계로 과목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교육내용을 추구하고 있다. 필수과목으로는 기록관리학, 필사본학, 일반 고문서학, 교황청 고문서학 그리고 라틴 고서체학이 있다. 이외에도 강독실습과 구두를 통한 이론연습이 있으며, 문장학, 인장학, 장식문자의 역사, 교황청의 역사 등 인접분야 혹은 보조학문에 대한 교육도 선택적으로 실시된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교육은 현장실습을 통해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기록물 전체에 대한 관심이 앞서 각 문서에 대한 친화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현장에서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발상은 역사적으로 해당지역의 독특한 발전과정을 증언하는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고유한 특성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탈리아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리아의 교육과정 대부분이 역사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계획된 반면에 업무 및 행정기록물에 대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러나 기록물 생산에서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역사기록물의 정리방식으로 원 질서 즉 생산당시에 부여된 최초의 질서를 존중하는 원칙이 채택되고 있으므로 업무 및 행정기록물에 대한 관리 역시 역사기록물의 관리체계와 일관성을 가지로 있다. 둘째, 17개의 국립기록보존소를 배경으로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비록 대학의 기록관리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것이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탈리아 국립기록보존소들이 교육과 이론보다는 기록관리의 일선에서 활동할 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중한 결과이다. 셋째, 역사문서들에 대한 연구를 위한 고문서학과 고서체학이 기록관리학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이탈리아의 과거사 연구가 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전문가와 역사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을 공동본보로 하는 역사연구의 방법론은 거시사연구보다는 각 지역이나 소단위 연구주체의 독특한 역사발전상황을 존중하는 미시사적 연구방법론이 정착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기록물을 관리할 주체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기록물의 다양한 그리고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문서들을 책임질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탄력적인 사고를 가진 기록관리전문가를 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이들이 기록 관리의 현장에서 신념을 갖고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 <ABSTRACT>

Conserving the recored cultural inheritance is actually the duty of all of us. Above all,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archives and documents is up to archivists who have technical knowledge about archival science. Archivists have to not only conserve archives and documents but also carry out classifying and appraising them in order to define them as current historic ones.

The fundamental education about archival science is made up of history and law. Because Archive is the organisation which manage archives and documents produced by legal and administrative actions. Although there are still arguments about technical knowledge and degree archivists have to acquire, most of them prefer the studies related with history and emphasize legal studies to be the general boundary of archivists' ideology and trust.

The training course about conservation of archives is conducted in about 9 National Archives of Torino, Milano, Venezia, Genova, Bologna, Parma, Roma, Napoli, Palermo. The training course in 19th was mostly based on the lectures of Phaleography, Diplomatics. There were not the education about archival science yet. Toward the end of 19th and 20th, people stressed the most basic subject in the training course of National Archive was not Phaleography and Diplomatics but archival science.

The goal of archival science is to study the institution and organisation transferring archives and documents to Archive. And also it help archivists not wander about with ignorance of organisational and original procedures and divisions but know exactly theirs works. Like this, the studies on institution and organisation have got in the saddle as a branch of archival science since a few ten years.

While archival science didn't evoke sympathy among people and experienced the tedious and difficult path in Italy and other countries, Archive was managed by experts of other branches. As a result, there were a lot of faults in Archival Science. Specializing training course for Italian archivists came into being under the backdrop of Social Science Institute of Roma National University in 1925. The archival course of universities accomplished by the studies of history, law and economy. And such as Eugenio Casanova and Giorgio Cencetti were devoted archival science was able to settle down in national archive.

The training course for experts of 'archival science, 'Phaleography and Diplomatics' in National Archive of Bologna(Archivio di Stato di Bologna) is one of courses conducted in 17 National Archives in Italy. This course is gratuitous and made up of 8 subjects(Archivistica, Paleografia, Diplomatica, Storia dell'Archivio, Notariato e documenti privati, istituzione medievale, istituzione moderna, istituzione contemporanea) students have to complete for two years. Students can receive the degree through passing twice written exam and once oral test. After department of Culture and education finally puts the marks of students, the chief National Archive of Bologna confer the degree of 'archival science Phaleography and Diplomatics' on students passing the exams. This degree authenticates trainees' qualification which enables him to work at the archive in province, district and administrative capital city and archive of community and so on.

Italian training course naturally leads archivists to keep in contact with valuable cultural inheritance through training in Archive. And it shows the intention to strengthen the affinity with each documents in the spot of archival management before training archivists. Also this is appraised as one of positive policies to conserve the local cultural inheritance in connection with the original quality of national archive which testify the history of each region.

Traning course for archivist in Italy shows us the way how we have to prepare and proceed it. First, from producing documents to conserving them forever there has introduced 'original order that is to say a general rule to respect the first order given at the time producing documents'.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documents is related consistently with one of historical documents. Second, the training course for archivist is managing around 17 national archives. because Italian national archive lay stress not on education or theory but on training for archivist working in the first time of archival science. Third, diplomatics and phaleography for studies about historical document support archives. Forth, the studies on history is proceeding by cooperation between archivist and historian around Archive.

How our duties is non continuously disputer who has to conserve and manage document and archives, but training experts who having ability, vision and flexible thought, responsibility about archivists.

## 1 서론

1.1 기록물은 과거에 대한 기록된 흔적이자 증언으로써 사회의 모든 분야의 기록된 삶을 반영한다. 이는 우리가 기록물이 과거에 대한 기억과 증명의 기능을 통해서 본래의 행정적 기능 이외에도 역사·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록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록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우리 모두의 사명이지만, 관리 및 보존의 임무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의 실질적인 몫이다. 따라서 기록관리전문가(Archivist)는 인류문화유산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역사·문화적 활용과 함께 시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기록관리전문가는 단지 오래된 기록물만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록물이 오래될수록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존에 있어서는 이 법칙이 항상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아니다. 이는 과거에 생산된 모든 기록물이 -비록 행정적 가치가 높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오늘날의 역사적 가치를 획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sup>1)</sup> 과거의 문서가 오늘날의 역사기록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미래적 안목의 평가와 선별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의 성패는 오직 숙련된 전문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기록관리전문가의 역할에 달려있다.

1.2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기록관리학의 범위는 기록물의 생산에서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며, 내용적으로는 크게 업무 및 행정기록물관리(record management)과 역사기록물관리(archivale management)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탈리아의 경우, 기록관리학의 전통영역은 역사기록물관리로 대변된다. 이러한 전통은

---

1) 기록물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전체 보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선별된 일부만을 보존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록물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반드시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의 기록관리학자인 힐러리 젠킨슨 경(卿)이 1950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Congresso internazionale degli Archivi에서 발표한 논문은 타당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Sir Hilary Jenkinson, 제 1차 Congresso internazionale degli Archivi, Parigi, 1950년 8월 23일, in <<Archivum>>, 1, 1951, 불어 판): (기록관리전문가는) 예상된 가치의 대소(大小)에 관계없이 모든 문서를 전체적으로 보존해야만 한다. 실제로 기록관리전문가의 임무는 진실, 즉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는, 말 그대로 소수에게 기쁨을 제공하거나 일부 학파나 주장에만 활용되지 않는 진실에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실 이탈리아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하기보다는 유럽적 형태의 보편적인 기록관리학이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역사기록물관리’는 18세기말·19세기초 구제도(舊制度)의 종말과 복원의 시대를 배경으로 원래의 질서(original order)를 상실한 채 방치된 수많은 문서들에 대한 정리작업의 필요성을 계기로 성립되었다. 이 기간에는 오늘날의 심진법적 분류와 유사한 -그리고 부적절하게도 오늘날까지 기록물정리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제별 정리 방식’의 실험적 모험을 통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록물정리방식과 그 이론적 배경’, ‘대규모 기록보존소의 설립’, ‘보존과학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심’ 그리고 ‘기록물의 법적, 문화적 가치 및 활용’ 등과 같은 개념들이 기록관리전문가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영역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관리학은 특히 중세문서들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서체와 기록배경에 대한 학문적 해석을 통해서 기록물을 역사연구에 활용하려는 고문서학 및 고서체학적 전통의 보조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반면, 근·현대의 기록관리는 그 범위와 해석에 있어서 전통기록관리와 다르게 발전하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문서관리라는 전통영역이외에도 업무 및 행정기록물의 생산에서 등록·분류·편철·활용·선별 그리고 이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record management)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근·현대 제도 및 행정규모의 확대와 발전에 편승하여 급증한 기록물에 대한 시급한 관리와 영구보존의 등급으로 분류된 기록물에도 생산당시의 원래의 질서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른 결과이다. 오늘날 기록관리전문가의 활동영역은 실질적으로, 기록물의 행정적 가치에서 역사·문화적 가치에 이르는 전(全)과정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기록관리전문가에게는 모든 분야에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모든 업무의 방향을 설정 및 수정하고 관리하며 통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1.3 역사기록물관리를 중심으로 성립·발전된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제도는 오늘날에도 과거의 전통과 제도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특징은 이 나라의 기록관리전문가들에 대한 인식과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전문교육과정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학과 국립기록보존소, 특히 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존에 기초한 기록관리제도와 기록관리전문가의 상호보완관계라는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탈리아 기록관리의 현주소는 ‘기록물의 업무, 행정적 가치’를 국가기록물관리와 ‘국정의 투명성 보장’의 연결고리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기록물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이에 근거하여 기록관리전문가 양

성교육을 추구하는 유럽기록관리전통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나라 기록관리전문가 양성교육의 교과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이탈리아에서도 기록물의 역사, 문화적 가치보존의 필요성이 대학 및 국립기록보존소의 교과과정을 지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록관리현장에서의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미래의 한층 효율적인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최고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일관성 있는 관리제도와 교육과정을 전제로, 과연 기록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국가기록물관리의 목적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필자 역시 본 논문의 결론이 한국 기록관리학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탈리아 기록관리전통과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 2 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전통

### 2.1 기본교육: 법과 역사

기록관리학에 대한 기본교육의 핵심은 역사와 법으로 구성된다. 두 학문분야는 기록관리전문가에게나 또는 단순히 기록물에 대한 연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나 모두 필수적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기본교육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미 1910년 부르셀에서 열린 기록관리전문가와 도서관 사서들의 제1차 국제회의의 기록관리전문가분과에서 조셉 꾸블리에(Joseph Cuvelier)는 “대부분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은 대학의 박사학위가 전문직업인의 자격에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어떤 분야의 학위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꾸블리에에 이러한 선택이 한가지 학문분야만을 선택하는 것으로 제한될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 대학교육의 규정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벨기에의 경우에는 철학과 인문학, 역사관련학문(벨기에는 기록관리학을 문학·철학부의 교육과정에 설치하였다)의 학위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육과목들은 법의 역사, 행정법 그리고 기록관리학의 과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탄력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1916년에는 조반니 비타니(Giovanni Vittani)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비타니는 인문학 학위와 법학 학위의 선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양측 모두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가능성차원에서 문과 및 역사관련 학문분야를 선호하였으며, 이들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여러 과목들이 ‘법의 역사’ ‘경제정책의 역사’ 그리고 ‘행정법의 역사’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문과의 박사학위에 이어서 법학학위도 취득한 비타니는 문과의 교육과정에서 많은 것을 습득하였지만, 법학연구를 통해 자신의 신념과 이념의 보편적인 테두리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였다.<sup>2)</sup> 이처럼 대부분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이 문과와 법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듯이, 많은 역사가들도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의 연구에 몰두하였다.<sup>3)</sup>

에우제니오 카사노바는 과거 기록보존소(또는 문서고)가 ‘문화적 성격이 지배적인 기관’으로 간주되고 있었기에 문과학위가 선호되고 있었지만, 자신이 「기록관리학개론(Archivistica)」을 저술한 해인 1928에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며, 역사연구는 인간사회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법·경제 그리고 사회현상들을 주목하는 방향으로 고유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적어도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현상은 국립기록보존소들이 정부의 행정기관에 예속된 1874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응시과목들, 즉 기록관리학 과정에 입학하기 이전에 기록관리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일반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한층 강화되고 있었다. 76년의 기간 동안 전문자격을 위한 과목들은 역사·예술·문학의 문과 분야에서 역사·법·경제(법에 대한 연구가 선호됨)분야로 이전되고 있었다.

2) Giovanni Vittani, *Le scuole degli Archivi di Stato*, in <<Gli Archivi italiani>>, a. V, 1918, pp. 99-100, 135-145.

3)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의 경우, 이들에 대한 연구는 1861년 이후 몇 년동안, *Scuole degli Archivi di Stato*를 제외한다면, 이탈리아 여러 대학들의 교육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말에 이들에 대한 관심은 문과와 법학부에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말과 20세기 사이의 기간에는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이 문과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오히려 이들에 대한 연구가 법학부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활발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상반되는 양측의 견해에 대한 중도적인 입장에 따르면 고문서학은 법학에 우선적으로 속하는 만큼 이들이 법학분야의 연구대상이고, 반면 고서체학은 문헌학에 속하는 만큼 문과의 연구대상이었다. 그 이외에도 고문서학이 법학분야에 속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를 문과에 속하는 법진(codice)의 고서체학과 그리고 고문서학과 함께 법학부에 속하는 문서들의 고서체학으로 구분하려는 주장도 있다(G.L. Perugi, *La paleografia e la diplomatica come contributo alla storia del diritto*, Bologna, 1917).

4) E. Casanova, *Archivistica*, cit., p. 463.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 기록보존소가 문화기관에 예속되는 경향이 우세해지면서 행정기관들이 기록보존소를 관리하던 과거의 전통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이러한 경향은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현상일 뿐이며, 이미 카사노바는 변화(문과에서 법 연구로의 방향전환)의 동기들 중에서 기록보존소에 있는 기록물의 법적성격(기록보존소의 문화적 성격은 법에 기초한 문화를 의미한다)과, 역사연구에서 법·경제·사회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었다.

기록관리전문가에게 법 연구가 필요한 것은 기록보존소가 문화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기록보존소는 법적, 행정적인 활동으로 생산된 문서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이와 같이 기록관리전문가의 활동, 즉 기록물의 정리작업과 목록집 작성작업은 문과보다는 법학분야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 2.2 19세기의 교육과정

나폴리(1811), 바비에라의 뮌헨(1821) 그리고 파리(1821)에 이어서 1826년에는 토리노 국립기록보존소에 고서체학과 고문서학 강의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1835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1846년에 잠시 재개된 이후 1871년에야 비로소 제도적으로 안정되었다. 다섯 번째로 교육과정을 시작한 밀라노 국립기록보존소는 1840년의 법령으로 고서체학, 고문서학, 고고학 그리고 과거에 대한 유사연구들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이 시작된 것은 1842년이었으며, 1863년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1871년에 재개되었다. 또한 1856년 베네치아에는 ‘고서체학과 고문서학 교육과정(Scuola di paleografia e diplomatica)’이 설립되었고 기록보존소,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에 종사할 지원자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그러나 1875년부터 3년간 중단되었다가, 이후 1878년에 재개되었다).<sup>5)</sup>

1856년에는 토스카나 대공국의 피렌체 국립기록보존소에 ‘고문서학과 고서체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 이 과정은 이탈리아통일(1861) 이후 1868년에 기록보존소에서 분리되어 고등학문연구기관, 즉 오늘날의 피렌체 국립대학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이탈

5) 한편, 이듬해인 1856년에는 팔레르모(Palermo)의 국립기록보존소가 1843년 8월의 기록관리법 art. 20, n. 8309에 의거해 설치된 고서체학 강좌를 시작하였다(이 강좌도 1874-1877년에 중단된 바 있었다). 또한 양 시칠리아왕국의 나폴리와 팔레르모에 설립된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교육과정에는 ‘연급수혜자들’, 즉 기록보존소의 교육과정에 등록을 위해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입학하였다.



리아의 다른 기록보존소들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기록관리학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sup>6)</sup>

19세기에 이탈리아에는 5개의 교육과정이 제노바 국립기록보존소(Archivio di Stato di Genova, 1873), 파르마 국립기록보존소(Archivio di Stato di Parma, 1876), 칼리아리 국립기록보존소(Archivio di Stato di Cagliari, 1877), 로마 국립기록보존소(Archivio di Stato di Roma, 1878), 볼로냐 국립기록보존소(Archivio di Stato di Bologna, 1890)에 설치되었다.

이후 이탈리아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교육과정은 1874년 3월 26일 왕령, n. 1861과 1875년 5월 27일 기록관리법, n. 2552에 따라 통합, 조정되었다. 특히 후자의 법령에 따라 이탈리아에서는 처음으로 '고서체학 교육과정과 기록관리이론(Scuole di paleografia e dottrina archivistica)'이라는 명칭의 교육과정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기록관리이론'이 '기록관리학'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로서 현대 이탈리아 교육과정들의 기본골격이 형성되었다.

당시 국립기록보존소를 배경으로 설립된 이탈리아의 교육과정들은 토리노, 밀라노, 베네치아, 제노바, 볼로냐, 파르마, 로마, 나폴리, 팔레르모 등 대략 9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칼리아리에 교육과정이 설립된 반면, 볼로냐에서는 중단되었다.

그 이외에 피렌체 국립대학에도 교육과정이 있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피렌체 국립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전문가 직위에 응시할 자격을 획득하였다(그러나 국립기록보존소의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기록관리학 강좌는 없었다).

바티칸 비밀기록보존소는 1881년 학자들에게 문서열람을 허용한데 이어서, 1884년에는 '고서체학 교육과정(Scuola di paleografia)'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은 이듬해인 1882년 팔레르모 국립기록보존소 교육과정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수도승 이시오도로 카리니(Isiodoro Carini)를 교수로 영입하면서 시작되었다. 2년 과정으로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을 교수하던 이 교육과정은 40년후인 1923년부터 1년 단위의 기록관리학과과정으로 재편성되면서<sup>7)</sup> 명실상부한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으로 발전하였다.

6) 한편 스페인에서는 10여 개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1859년 마드리드에는 도서관 사서와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Escuela de diplomática>>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1900년 7월 20일의 왕명으로 폐쇄되었으며 -실제로 기록관리학에 대한 아무런 교육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교육과정은 대학의 문과로 이전되었다. 최근에는 여러 대학들과 지역의 기록관리행정기관들이 기간과 수준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록관리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7) Giulio Battelli, *La Scuola dell'Archivio segreto vaticano*, in <<Archivum>>, III, 1953, pp. 45-49.

### 3 기록관리학의 오랜 여정

#### 3.1 학문으로서의 기록관리학: 성립에서 공인까지

오늘날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구축된 기록관리학을 배경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록관리학의 여정은 충분한 권위와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까지 지리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학술적으로는 완전히 공인되었다고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이탈리아에서 1874년의 ‘기록관리학이론’이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관리학’이라는 명칭은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교육과정에서 언급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에는 1963년의 기록관리법(d.p.r. 1963년 9월 30일, n. 1409)이 정의한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전문 교육과정’에서 첫번째로 언급되고 있다.<sup>8)</sup>

19세기말 이폴리토 말라구치 발레리(Ippolito Malaguzzi Valeri)는 “이탈리아에서 기록관리학은 아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학문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필연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최종적인 입지는 장래 기록관리에 종사할 젊은이들에게 이론과 실습이 적절하게 조화된 교육이 실시되고, 고서체연구와 고문서연구 그리고 역사비평이 기록관리학의 수단으로 간주될 때 마련될 수 있으며,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sup>9)</sup>라고 하였다. 말라구치의 말에서 특히 주목해 볼 대목은 그가 기록관리학의 비중을 강화하고 -외국의 여러 교육과정들과 특히 파리의 Ecole des chartes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역사학을 단순히 기록관리학연구를 위한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는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1914년 카사노바가 ‘이탈리아의 기록보존소들, 기록관리학과 보조학문들

8) 최근에 여러 교육과정에서는 기록관리학의 교육내용을 세분하여 여러 과목으로 나누어 여러 선생들에게 강의를 위탁하고 있다. 로마 정부기록보존소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20세기 80년대 초부터 교육내용이 1)일반기록관리학(기록관리학이론; 기록관리학조직과 입법; 고대부터 오늘날까지의 기록보존소의 역사), 2)특수기록관리학(중세부터 1870년까지 교황청정부의 기록물의 정리작업과 세도의 역사; 이탈리아왕국의 건설, 즉 1861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이탈리아정부 기록물의 정리작업과 세도의 역사)으로 세분되었다. 반면에 일반 및 특수고문서학에는 한 명의 교수가, 그리고 분서들의 서체에 대한 특별한 언급과 함께 라틴 고서체학의 강의에도 한 명의 교수가 배정되었다.

9) I. Malaguzzi, *L'Archivio di Stato in Modena durante il triennio 1888-89-90*, cit., pp. 18-19.

의 격월지'라는 명칭을 자신이 창간한 전문잡지의 부제로 사용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 전문잡지의 창간호에서 카사노바는 기록관리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의 핵심은 고서체학이 아니라, 기록관리학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sup>

1918년 조반니 비타니(Giovanni Vittani)는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본은 고문서학과 고서체학이 아니라 기록관리학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는 기록관리학의 입지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국립기록보존소의 교육과정에서 강의되고 있는 과목들에서 고문서학과 고서체학을 폐지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은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관리학'이라고 제차 강조하였다.<sup>11)</sup> 그는 계속해서, 만약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에 대한 교육이 오직 대학으로만 국한되었다면, 기록보존소의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들은 "보조학문들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모든 활동을 기록관리학, 제도사 그리고 기록관리학에 관련된 특수고문서학에 대한 교육에 몰두할 수 있었을 것"<sup>12)</sup>이라고 하였다.

비타니와 함께 네덜란드 기록관리전문가들의 지침서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던 주제페 보넬리(Giuseppe Bonelli)는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교육과정이 "기록관리학 고등교육과정이라는 좀더 적절한 이름으로 지칭되어야 하며,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에 대한 교육은 교육생들의 직업교육, 즉 가장 중요한 과목인 기록관리학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sup>13)</sup>고 주장하였다.

물론, 기록관리전문가와 과거의 기록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의 주요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고서체들, 즉 법전들에 대한 단순한 고서체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특히 문서들, 즉 문서의 서체들에 대한 고서체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미 1914년에 에우제니오 카사노바는 "대학교육에서는 고서체학에 대한 교육을 법령연구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기록보존소의 교육과정에서는 문서들에 대한 고서체학이 선호되기는 하였지만, 이들 모두의 그 어느 부분도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었다.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은 중세말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근대의 문서에서도 언급되어야

10) *I RR. Archivi di Stato nel biennio 1912-1913*. 카사노바의 발표문은 in <<Gli Archivi italiani>>, I, 1914, pp. 3-74.

11) G. Vittani, *Le scuole degli Archivi di Stato*, cit., p. 101: 기록관리학은 "과거에도 항상 그러하였으며,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12) G. Vittani, *Le scuole*, etc., cit., p. 143.

13) *Archivi e archivisti milanesi. Scritti*, A. R. Natale의 감수, vol. I, cit., p. XXVII.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당연히 라틴어로 작성된 중세문서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근대의 고서체학만을 연구하지만, 마르부르크(Marburg)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서는 중세와 근대로 분리된 고문서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카사노바는 계속해서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어서 다른 학문들에 대한 기록관리학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고백하였다(1914, 1928). 어쨌든 그는 1914년, 기록관리학에 대한 교육이 잘 정리된 많은 기록보존소들을 대상으로 직원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만큼, 기록관리학이 강의되고, 반대로 수많은 고서체학자들을 대신하여 기록관리전문가들의 활동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였다.<sup>14)</sup>

기록관리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에 대한 기록관리학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카사노바의 학문적 소신은 그의 저서 『기록관리학개론(Archivistica)』(1928)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기록관리전문가에게 필요한 학문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록관리전문가에게 필요한 학문은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이다. 이들은 모두 필수적이며 문장학, 가계학, 인장학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완성되었다. 그러나 기록보존소의 모든 문서들이 고서체학자, 고문서학자 등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모든 문서들은 기록관리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관리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기록보존소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기록관리학의 목적은 기록보존소에 기록물을 이관한 제도와 기관들을 연구하고, 관리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고 각 기관들의 고유한 업무절차와 업무분담에 대한 무지의 어둠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sup>15)</sup>

문서를 생산한 기관과 제도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기록관리학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으며, '특별기록관리학'으로 정의되었다. 이탈리아의 대학교육에 기록관리학이 등장한 것은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사노바는 로마 국립기록보존소의 소장으로서 있으면서 로마대학교 정치학부에서 10여 년 동안 기록관리학을 강의하였고 1927년부터는 문-철학부의 '도서관 사서와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특별분과(Sezione speciale per bibliotecari e archivisti)'에서 교수활동을 하였다.<sup>16)</sup> 카사노바의 교수활동과

14) E. Casanova, *I RR. Archivi di Stato nel biennio 1912-1913*, cit., p. 29.

15) E. Casanova, *Archivistica*, cit., pp. 468-469.

16) 특별분과는 처음에는 교육과정이었지만, 1952년에는 학부차원의 <<기록관리전문가와 도서관 사서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안토니오 파넬라(Antonio Panella)는, 역시 1925년부터, 피렌체 대학의 '도서관 사서와 고서체학-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은 1868년 피렌체 정부기록보존소로부터 이전되었다)에 처음으로 도입된 기록관리학을 1950년, 즉 교육과정이 폐지될 때까지 강의하였다.

그러나 학계의 일부에서는 기록관리학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목으로서 1970년경에 비교적 현실적이지 못한 차원에서 성립되었지만, 이후 30여 년 동안 보다 구체적인 임무와 책임감을 획득하게 되었다<sup>17)</sup>”는 주장과 더불어서, 1925년부터 카사노바가 로마대학의 정치학부에서 기록관리학의 강의를 시작한 것을 ‘짧은 기간에 있었던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물론 팔레르모(Palermo) 문과대학의 중세사와 고서체학 교육과정에서 법의 역사를 교수하던 기록관리전문가인 루이지 제누아르디 디 몰라니초(Luigi Genuardi di Molanizzo)의 기록관리학강의(1915-16)<sup>18)</sup>는 불과 2년 동안 지속된, 말 그대로의 단편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로마대학의 카사노바(10년)와 피렌체 대학의 안토니오 파넬라(25년)의 강의는 결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카사노바의 「기록관리학개론」은 국제 학회에서 만장일치로 ‘기록관리학의 최고업적’<sup>19)</sup> 또는 ‘기록관리학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저술’<sup>20)</sup>로 평가되었다.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교육에서 기록관리학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는 이탈리아에 국한된 경향은 아니었다. 아우렐리오 타노디(Aurelio Tanodi)는 후에 코르도바 국립대학의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 즉 미주국가들의 조직인 ‘라틴 아메리카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다국적 센터’로 전환될 교육과정의 강의과목들을 준비하면서, 기록관리학의 우선적인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유일한 기초이며 핵심적인 과목은 오직 기록관리학이다”<sup>21)</sup>라고 표현하였다(1958).

### 3.2 기록관리학의 점진적인 발전

위한 특별교육과정>>으로 전환되었다.

17) F. Valenti, *Parliamo ancora di archivistica*, cit., p. 173.

18) <<Gli Archivi italiani>>, III, 1916, p. 279.

19) A. Brenneke, *Archivkunde*, cit., p. 1: <<das veste umfassende Werk über Archivwesen>>.

20) Encyclopaedia Britannica(1968년 판에서 인용, 어휘: Archives, of Lester K. Born): <<the most complete general text on the subject>>.

21) aurelio Z. Tanodi, *Notas sobre archivos y archivologia*, in <<Revista de humanidades>>, a. I, n. 1, 1958, p. 25: “No hay duda, que la pincipal materia, la u’nica fundamental, es la archivologia”

그럼에도 기록관리학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문으로서의 길고 어려운 여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조반니 비타니는 1910년 기록보존소에 대한 일반인들의 무지가 심각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들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기록보존소를 도서관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여러 국가들의 입법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기록보존소는 때로는 기록관리학을 알지 못하는 저명한 역사가들에 의해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심각한 결과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기록보존소는 기록관리학에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원하는 문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제별 정리방식에 따라 정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실험의 장은 특히 19세기에 빈번하였으며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 기록보존소의 정리작업을 추진한 사람들 중에는 역사를 비롯한 타학문의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무모하고 즉흥적인 소신에 기초하여 스스로 기록보존소를 정리할 능력을 가진 기록관리전문가로 행세하였다.<sup>22)</sup>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19세기는 기록보존소의 수난의 시대로 정의될 만큼, 비기록관리 전문가들에 의한 기록물정리작업으로 수많은 기록보존소들의 기능이 회복불능의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였던 시대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독일에서는, 엑크하르트 프란츠(Eckhart G. Franz)의 말처럼, 뮌헨 교육과정의 고문서학자들을 제외한 기록관리학자들은 실제로는 기록관리전문가·역사가 또는 기록관리전문가·고서체학자들이었으며, 모두 역사학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은 중세사를 전공한 학자들로서 스스로를 현장의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특별한 기초도 없는- 기록관리전문가로 자부하고 있었다. 그 결과, 프란츠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나라(독일)의 수많은 기록보존소들이 과거 기록관리전문가·역사가들의 문서정리작업의 결과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이들은 기록물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구조, 즉 원 실서를 완전히 파괴하였다.”<sup>23)</sup>

스페인의 안토니아 헤레니아 헤레라(Antonia Heredia Herrera)는 자국에서의 경험에 기초하여, 19세기 중반에 유래지 원칙이 이론적으로는 성립되었지만 적용되지는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이 도서관 사서들의 방식과 스타일에 따라 또는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주제별 분류방식에 따라 문서들을 정리하는데 열중하였기 때문이었다”고

22) G. Vittani, *La formazione dell'archivistica*, cit., p. 82.

23) E.G. Franz, *Archives et archivistique dans la République Fédérale d'Allemagne*, cit., p. 35.

하였다. 당시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역사가들이었으며 이들의 전공도 역사, 고서체학, 고문서학, 연대기학, 인장학(印章學) 등이었다.<sup>24)</sup>

1966년, 이탈리아 역사학의 대학교수협의회는 자국의 회원들에게 기록보존소와 기록관리학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기록관리학이 독자적인 학문인가에 대한 질문에 상당수의 역사학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53,3%) 대답을 회피하였으며(25%), 긍정적인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26,7%에 불과하였다.<sup>25)</sup> 결과적으로 이 조사에 응한 (이탈리아 대학들의) 역사교수들의 1/4정도가 기록관리학의 학술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프랑스에서도 기록관리학에 대한 인식은 별로 보편적이지 못하였다. 비교적 최근인 1986에 Bertrand Joly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관리, 기업가 그리고 역사가, 즉 기록보존소에 자신들의 문서를 이관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기록관리학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며[...] 오늘날 기록보존소에 대한 교육이 수많은 대학에서 미진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sup>26)</sup>

기록관리학에 대한 인식부족의 사례는 영국과 북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기록관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은 1947-48년에 런던 켈리지 대학의 <<도서관교육과정(School of Librarianship)>>이 <<도서관과 기록관리행정 교육과정(School of Librarianship and Archive Administration)>>으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그리고 유럽대륙의 기록관리학에 정통한 헐러리 켄킨슨의 강의를 시작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적어도 1929년까지 기록관리전문가들은 아무런 기초소양이나 사진교육도 없이 실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관리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저급한 수준에 머물고

24) 또한 마리아 예수스 알바레스-코카 곤잘레스(Maria Jesus Alvarez-Coca Gonzalez)는 마드리드의 국립역사기록보존소(Archivo Histórico Nacional)가 Real Academia de la Historia의 제안으로 설립되었으며(1866), “문서를 관리하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은 19세기에 유럽의 거의 모든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지배하던 중세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도서관의 관리기준들의 영향을 받은 역사학자들 중에서 배출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문서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 구조에 대한 무시, 출처가 다양한 문서들의 혼합, 도서관의 방법론 도입 그리고 수많은 기록보존소들에 알파벳정리 방식의 도입과 같은 현상이 진행되었다(Maria Jesus Alvarez-Coca Gonzalez, *La Cámara de Castilla: Secretaría de Gracia y Justicia e El Consejo de las Ordenes Militares*, en <<Cuadernos de Historia Moderna>>, n. 15, Madrid, 1994, pp. 279-296, pp. 297-323).

25) <<Bollettino della Società degli Storici italiani>>, n. 6, Milano, 1966년 11월, p. 284.

26) Bertrand Joly, *Les archives contemporaines ont-elles un avenir?*, in <<La Gazette des archives>>, nn. 134-135, 1986년 3-4분기, pp. 185-193, 특히 pp. 192-193.

있었다.<sup>27)</sup>

1912년 북미 기록관리학의 선구자인 롤랑(waldo G. Leland)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도서관에 관련된 학문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지만, 기록관리학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sup>28)</sup> 그리고 반세기 이상이 지난 1956년에도 미국의 학자인 테오도르 R. 쉘렌버그는 자신의 「The Management of archives」에서 과거에 비해 별로 진척되지 못한 기록관리수준의 저급함을 지적해야만 하였다.<sup>29)</sup>

이처럼 기록관리를 위한 전문직업은 이직도 형성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대부분의 절차들은 아직도 발전단계에 답습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들에 대한 표준화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보존소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유래지의 원칙은, 그 가치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쉘렌버그의 말처럼, 본 원칙의 의미는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기록물정리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주정부들의 문서들은 물론, 연방문서들까지도, 국립기록보존소의 암묵적인 승인하에, 멜빌 뉴이의 십진법으로 분류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기록관리학은 모두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그 무엇이었다.

미국의 기록관리학과 도서관학의 독특한 발전은 결과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접근되고 예속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유럽 최고수준의 기록관리전문가인 에른스트 포스너는 1939년 미국에 Archives administration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최초로 도입하였을 때에도 워싱턴의 아메리칸 대학의 Library School과 공조해야만 하였다. 마찬가지로 쉘렌버그도 자신의 저서, 「The Management of Archives」를 <Colombia University Studies in Library>의 시리즈로 그리고 저서의 첫번째 장을 <Development of Library Methodology>에 대한 주제로 채워야 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기록보존소와 기록관리학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도서관학의 분야가 미국에서 첨단 수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세계의 도서관 사서들 사이에서 기록관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불가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27) E. Posner, *European experiences in training archivists*, cit., pp. 26-27.

28) Cfr. R. L. Clark, jr.(Editor), *Archive-Library relations*, cit., p. XI.

29) 당시 미국의 도서관 분야는 쉘렌버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The Management of Archives」), 이미 19세기를 거치면서 분류와 카탈로그 작업 그리고 색인작업에서 체계화 및 표준화의 단계에 도달함으로써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의 도서들을 대상으로 19세기에 미국의 도서관 사서였던 멜빌 듀이(Melvil Dewey)의 보편십진법 분류가 확산된 것과 일치한다. 전세계의 도서관에서 절대적으로 수용된 보편 십진법분류는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을 ‘필사본’이나 ‘희귀본’과 동일한 부류로 간주하였다: 분류, 025, 171.<sup>30)</sup>

사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과실이 -기록관리학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같은 수많은 국가들의 도서관 사서들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sup>31)</sup>

심지어 이러한 착각은, 이탈리아에서 인쇄된 서적들에 대한 사본제출의 의무(copie d'obbligo)에 기초하여, 문화환경부 장관의령으로, 도서관에 제출되는 서적들을 대상으로 피렌체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작되는 “이탈리아국가도서목록(Bibliografia nazionale italiana)”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출판물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sup>32)</sup>

좀더 최근에 미국에서는 기록관리학의 교육이 차지할 위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등장하였다. 하나는 기록관리학이 역사학의 교과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에 따르면 기록관리학은 도서관학의 교과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1909년 플라(Waldo G. Leland)도 기록관리전문가에게는 역사와 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특별히 기록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법과 행정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1909년 미국역사협회(1909년에 설립됨,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s Conference of Archivist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는 이후 1936년에 설립되었다) 내에 설치된 ‘기록관리전문가 협의회’는 일년 후부터 계속적으로 기록보존소의 정리작업에 도서관의 정리

30) 십진법분류에서 영, 즉 ‘0’는 일반저술들을 의미한다. 기록보존소와 기록관리학은 분류 020, 즉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기록관리학은 언급되지도 않았다)으로 명칭되었다. 최종적인 세분과정에서 025.1은 항상 도서관과 정보학의 행정(administration)을 가리킨다. 그리고 025.17은 <treatment of special materials>를, 그리고 끝으로 같은 분류체계에서 025.171은 <manuscripts, archival materials, rarities>를 가리킨다(*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Edition 19)에서 인용).

31) Elio Lodolini, *La guerra di indipendenza degli archivisti*, in *Miscellanea Carlos Wyffels*, (1987), cit., pp. 269-293.

영어 번역본은 in 캐나다의 전문잡지, <<Archivaria>>, n. 28, 1989 역봄, pp. 36-47.

32) 기록보존소와 기록관리학에 관련된 이탈리아의 모든 서적들은 <<Bibliografia nazionale italiana>>에서 biblioteche의 명칭으로 분류된다.

한가지 대표적인 사례로서, 1981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들의 행정기관에서 출판되는 Guida generale degli Archivi di Stato italiani까지도 Biblioteche statali의 명칭, 즉 027. 5(34)으로 분류되었다.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다.<sup>33)</sup>

최근에 윌리엄 오르(William J. Orr)는 유럽과 미국의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차이가 관련기록물의 서로 다른 성격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당시 까지 역사학부 또는 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던 미국의 기록관리전문가 양성교육이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서 헬무스(Ruth W. Helmuth)는 도서관 사서들과 역사가들을 제외한 오직 기록관리전문가들만이 기록관리전문가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sup>34)</sup>

그러나 1987년까지도 미국에서 기록관리학을 위한 특별교육계획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1993-94년에 로이 쉐퍼(Roy Schaeffer)는, 매년 개최되는 캐나다 기록관리전문가들의 학술회의에서, 거의 70여년 동안 북아메리카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은 기록관리전문가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이 역사학이나 정보학에 관련된 교육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오직 최근에서야 비로소 북아메리카의 기록관리전문가들과 교육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지적인 기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은 기본적으로 유일한 기록관리문화의 협력과 학문연구의 근본적인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다.<sup>35)</sup>

국제차원에서도 19세기 국가들간의 영토변경에 따른 기록물의 이진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출처존중의 원칙 또는 유래지의 원칙에 기초한 기록관리전문가들의 관점은 “관련지역의 원칙”에 우호적이며 이 원칙이 자신들의 연구를 보다 쉽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역사가들의 관점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sup>36)</sup>

1982년 토리노에서 개최된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칼 게오르그 회베(Karl Georg Faber)는 프랑스의 저명한 역사가인 퓨레(François Furet)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퓨레의 이론에 따르면 기록물의 정리작업에서 유래지원칙은 <<낡은 역사>>의 한가지 특징에 불

33) Richard C. Berner,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 historical analysis*,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 7.

34) William J. Orr, *Archival training in Europe*, in <<The American Archivist>>, 44, 1981, pp.27-39; Ruth W. Helmuth, *Education for American archivists*, in <<The American Archivist>>, 44, 1981, pp. 295-303(“archivists should teach archivists”).

35) Roy Schaeffer, *From craft to profession: the evolution of archival education and theory in North America*, in <<Archivaria>>, n. 37, 1994년 봄. 1993년 7월 캐나다 기록관리전문가학술회의의 발표문.

36) R.-H. Bautier, *Rapport general*, in *Actes de la sixième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 la Table ronde des Archives. les Archives dans la vie internationale; droit international des Archives, collaboration internationale en matière d'Archives*, etc., p. 21.

과하였다. 회비에 따르면 푸레는 “주제별 분류에 기초하여, 즉 관련지역의 원칙에 따라 문서들을 수집하였다. 사실 역사가들이 문서에 요구하는 것들은 실제로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들이며 이들은 유래지 원칙에 따라 정리된 각 기록물의 합리적이고 시기적인 한계를 끊어버렸다”.<sup>37)</sup>

이 상황에서 푸레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명한 것은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이 <<역사가들이 문서에 요구하는 사항들>>에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잘못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9차 국제기록보존회의(런던, 1980)에서 기록관리방법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이스라엘의 아라드(Arié Arad)는 기록관리학이 아직까지는 학문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으며 소수의 기록관리전문가들만이 기록관리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38)</sup> 물론 이 견해는 발표직후 적지 않은 반론에 답변을 해야만 하였다.<sup>39)</sup>

제10차 국제기록보존회의(본, 1984)에서 부라흐만(Botho Brachmann)은 기록관리학의 이론과 방법론은 궁극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자원과 인원을 강화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1984년을 계기로 기록관리학으로서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적어도 1995년까지 북아메리카에서는 기록관리학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sup>40)</sup>

37) Karl Georg Faber(Münster), *Cogito ergo sum historicus novus*, in *La teoria della storiografia oggi*, <<La teoria della storiografia negli ultimi vent'anni>>에 관한 토리노 학술회의 발표문, Goethe Institut, 1982, 5.31 - 6.2, P. Rossi 감수, Milano, 1983, pp. 215-222.

38) <<Unfortunately, archivistics can not yet be regarded as an established science. Substantively, there exist no general method, no predictive schemes and very little scientific enquiry. Symptomatically the professional literature is mainly descriptive, and the amount of comparative and analytical works in archivistics is negligible. This is a regrettable situation, but its recognition, and admission is the first step towards its improvement. Most archivists feel a need for a theory, veru few of them have the drive to do some theoretical research and of these only a fraction can afford the time and means to engage in such a research. Here is one place for the internationale organization to step in and lend a helping hand>>(Arié Arad,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and archival methodology*, in *MMArchivum*>>, XXIX, 1982, pp. 182-186).

39) Elio Lodolini, *The archival work method*, ivi, p. 186.

40) Robin Wyle, *Student Archivistics: the contribution of Master of Archival Studies theses to archival professional literature*, in “Archivaria”, n. 39, 1995년 봄, pp. 96-107.

## 4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 4.1 교육과정의 기본구조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은 1925년, 에우제니오 카사노바(Eugenio Casanova)가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이후에, 로마 국립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의 기록관리를 위한 교육은 역사, 법, 경제에 대한 연구풍토에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사회과학대학의 학위에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자격시험이 포함된 것은 1936년, 즉 로마 국립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 과목이 폐지된 해였다.

1928년 카사노바는 기록관리학을 위한 교재로 「기록관리학개론」을 집필하였다. 이 지서는 출판 직후에 기록보존소의 역사, 기록관리술, 순수기록관리(또는 기록관리론) 이외에도 기록보존소의 법적 성격과 활용 그리고 기록관리법을 서술한 명저로 평가되었다.

이후 카사노바의 기록관리를 위한 열정은 20세기 중반의 위대한 기록관리전문가인 조르조 첸체티(Giorgio Cencetti)를 통해 그 결실을 거두었다. 이들의 공로로 기록관리를 위한 교육은 대학의 공식과정으로서 이외에도,<sup>41)</sup> 문화환경부의 지원으로 여러 국립기록보존소들에 신설된 전문교육과정으로 정착되었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기록관리법 제1409호(1963년 9월 30, 공화국 대통령법(이하 D.P.R.로 표기)에 따르면,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전문교육과정(La Scuola di archivistica, paleografia e diplomatica)’은 전국 17개 국립기록보존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sup>42)</sup>

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전문교육과정’은 대학들의 그것과

41) 그 이외에도 1957년 1월 10일 n. 3의 공화국 대통령법의 제 150조와 151조에 의거하여 대학에 ‘기록관리전문가와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1963년 9월 30일, 제 1409호 대통령 법 제 14조).

42) 이 나라의 국립기록보존소는 각 도의 행정수도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보존소들에 보존된 문서들은 대부분 통일 이전에 각 지역정부들의 중앙행정조직들이 생산한 것들로써, 과거 복잡하였던 영토변화의 모든 흔적들을 반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1963년 9월 30일) 제 1409호에 따르면,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전문교육과정’은 모두 17개 도시의 국립기록보존소들에 설치되었다: 토리노(Torino), 밀라노(Milano), 만도바(Mantova), 베네치아(Venezia), 볼자노(Bolzano), 트리에스테(Trieste), 제노바(Genova), 파르마(Parma), 모데나(Modena), 볼로냐(Bologna), 피렌체(Firenze), 페루지아(Perugia), 로마(Roma), 나폴리(Napoli), 바리(Bari), 팔레르모(Palermo), 칼리아리(Cagliari)의 국립기록보존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무상공교육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들 이외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격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다만 바리(Bari), 모테나(Modena), 트리에스테(Trieste) 그리고 베네치아(Venezia)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생을 매년 선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의 입학하기 위해서는 교과내용상으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석사과정의 수준에 해당하는 scuola media superiore의 학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첫해의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라틴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입학요청서는 소정양식을 통해 제출되며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전문교육과정의 신입생선발은 대략 10월 15일을 전후한 기간에 공고된다. 그리고 입학시험은, 정확한 날짜는 예고없이 공고되지만, 대략 10월 후반기에 실시된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전문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정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험으로 통해 1등에서 50등까지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볼자노와 로마의 교육과정은 자체내의 인원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각각 20명, 40명을 선발하고 있다. 특히 로마의 경우에는 바티칸 기록보존소의 교육과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적은 수의 지원자를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교육과목으로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고문서학이외에도 도량형학, 화폐연구 그리고 문장학과 같은 보조학문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한 실습을 위해 고문서연구를 수강해야 한다. 각 과목에 필요한 교재는 수강생들이 자비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교육과정은 출판물, 고문서사본 그리고 다른 교육교재들을 제공하는데, 수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본 교육과정은 한 학기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5월에 종강한다. 또한 출석수업이 원칙이며 이듬해의 상급과정에 오르기 위해서는 첫 해 각 과목별 수업시간의 5/6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2년의 교육과정은 그 동안의 모든 학습내용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시험으로 마감된다. 2회의 필기시험과 1회의 구두시험으로 구성된 최종시험은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같은 날짜에 오직 한번의 기회로 진행된다. 한편, 전자는 시험의 주제로 주어지는 고문서를 대상으로 이서작업, 고문서학과 기록관리학의 측면에서의 분석으로 구성된다.

물론, 최종시험에 통과한 과정생들에게는 교육과정의 학위증(Diploma)이 제공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수료증은 로마의 사피엔차(Sapienza)대학교(Universita' degli Studi della Sapienza)의 ‘기록관리전문가와 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특별과정’이 발급하는 학위증과 바

티칸 비밀기록보존소(archivio Segreto Vaticano)의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 교육과정(Scuola di paleografia diplomatica e archivistica)’이 제공하는 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4.2 볼로냐(Bologna) 국립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전문교육과정’

### 4.2.1 교육 및 교과과정

볼로냐 국립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의 전문교육과정’은 이탈리아의 17개 국립기록보존소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들 중의 하나이다. 1890년에 설립된 볼로냐 국립기록보존소의 전문교육과정은 그 기원이 17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볼로냐 대학과 자치도시 기록보존소가 체결한 협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근세기에 접어들면서 본 전문교육과정은 교육규정들의 통합절차를 거치면서 구조와 목적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현재 교육과정을 위한 법규정은 d.p.r. 30 settembre 1963, n.1409의 제 14조<sup>43)</sup>; r.d. 2 ottobre 1911, n. 1163의 artt. 58-64<sup>44)</sup>에 근거하고 있다.

본 교육과정은 무료이지만, 이탈리아의 기록관리행정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입학절차와 입학시험을 의무화하였다.

본 전문교육과정은 2년을 주기로 반복되며, 8개의 과목 중에 7개의 과목(3개의 필수과목과 4개의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sup>45)</sup> 본 전문교육과정은 국립기록보존소

43) 이탈리아 기록관리법, d.p.r. 1963년 9월 30일, n. 1409의 제 14조는 국립기록보존소의 전문교육과정과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전문번역은 다음과 같다:

본 법령의 부록에 수록된 도표 B에 언급된 국립기록보존소들에는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전문교육과정’이 설치된다.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의 학위증이 제공된다. 전문과정의 설치규정과 교육법은 교육부장관과 재무장관(Tesoro)의 협의를 통해 내부부 장관의 제안으로 공포되는 규정에 의거한다. 1957년 1월 10일, n. 3 공화국 대통령령으로 승인된 정부민간관리들에 대한 법령의 150조와 151조에서 규정된 교육과정의 경우[Gazz. Uff., 1964년 1월 28일, n. 23을 통해 수정됨], 국립기록보존소의 행정은 본 조항의 전문교육과정 이외에도 1957년 1월 10일, n. 3의 공화국 대통령령 제 150조와 151조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대학에 설치된 ‘기록관리전문가와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전문교육과정’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한다.

44) r.d. 2 ottobre 1911, n. 1163(in Gazz. Uff., 8 novembre, n.260), Capo V artt. 58-64: 전문교육과정에 관한 법 규정.

의 행정업무에 종사할 지원자를 제외한 50명에게만 허용된다. 물론 이들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sup>46)</sup> 그리고 입학심의위원회는 블로냐 국립기록보존소의 소장과 전문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2명의 교수로 구성된다.<sup>47)</sup>

본 전문교육의 제1학년 과정은 매년 11월초에 시작하여 이듬해 4월말에 종강한다.<sup>48)</sup> 그

45) 블로냐 국립기록보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전문교육과정'의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필수과목: 기록관리학(1학년, 2학년)

고서체학(1학년, 2학년)

고문서학(1학년, 2학년)

선택과목: 기록보존소의 역사(1학년)

공증인제도와 사문서(2학년)

중세의 제도사(1학년)

근대의 제도사(2학년)

현대의 제도사(2학년)

46) 입학시험으로 실시되는 필기시험에서는 중세시대에 작성된 라틴어원문(12-15세기)을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은 3시간동안 실시되며 라틴어사전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비록 정확한 날자는 9월에 발표되지만, 일반적으로 10월에 실시되는 입학시험은 공채에 관한 법규정(d.p.r. 9 maggio 1994, n. 487 그리고 수정안 d.p.r. 30 ottobre 1996, n. 693)에 근거한다.

47) 본 교육과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30점 만점에서 최소 18점을 획득해야 하며, 50명의 합격자는 성적 순에 따라, 즉 30점 만점에서 18점까지의 점수를 획득한 지원자들 중에서 선택된다.

48) 참고로 본 과정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1학년 과정:

월요일: 1부, 15,00 - 16,00: 고서체학; 16,00 - 18,00: 근대제도사

2부, 15,00 - 16,00: 고서체학; 16,00 - 18,00: 기록관리학

목요일: 12,30 - 14,00: 기록관리학실습;

1부, 15,00 - 16,00: 고문서학; 16,00 - 18,00: 기록보존소의 역사

2부, 15,00 - 16,30: 고문서학; 16,00 - 18,00: 중세제도사

2학년 과정: 2학년과정의 수업들은 1998년 11월에 시작하여 1999년 4월에 종료되며 다음의 과정을 구성한다.

월요일: 1부, 15,00 - 16,00: 고서체학; 16,00 - 18,00: 현대제도사

2부, 15,00 - 16,00: 고서체학; 16,00 - 18,00: 기록관리학

목요일: 12,30 - 14,00: 기록관리학실습;

1부, 15,00 - 16,00: 고문서학실습; 16,00 - 18,00: 공증인제도와 사문서

2부, 15,00 - 16,00: 고문서학; 16,00 - 18,00: 고서체학실습

참고: 1. 각 과정이 진행중인 단계에서 각 과목의 주제들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

리고 2년의 모든 과정은 최종시험으로 마감된다. 시험은 2회의 필기시험과 1회의 구두시험으로 구성된다. 기록관리학의 필기시험은 기록관리학과 기록보존소의 역사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제도사에 관한 3가지의 문제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에 대한 필기시험은, r.d. 2 ottobre 1911, n. 1163에 의거하여, 고문서 이서, 고서체학적 비평, 고문서학적 분류 그리고 12-15세기에 라틴어로 작성된 고문서에 대한 고문서학적 비평으로 구성된다.

구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응시자들은 평균성적 70/100 이상의 전수를 획득해야 하며, 각 과목의 성적은 30/50이상을 얻어야 한다. 구두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 4.2.2 학위와 기록관리전문가의 자격요건

응시자들의 최종시험성적이 문화환경부에 의해 종합되면 볼로냐 국립기록보존소의 소장은, d.p.r. 30 settembre 1963, n. 1409에 의거하여,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들에게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학위(Diploma)’를 수여한다.

본 학위증은, d.p.r. 30 settembre 1963, n. 1409의 제 31조에 따라, 도, 지방 그리고 지방의 행정수도에 위치한 자치도시 기록보존소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도시의 조합기록보존소 및 다른 기관들의 기록보존소에 근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격요건을 구성한다.

그 이외에도 본 자격증은 지역행정기관들에 소속된 문화단체,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사(私)기관의 기록보존소에 근무하기 위한 채용시험에서 필수적인 자격요건으로 간주된다.

### 4.3 비티칸 비밀기록보존소(Archivio segreto del Vaticano)의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2. 볼로냐 지방의 행정기관과 에밀리아-로마냐 지방 기록물관리감독위원회가 협력하여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자치도시 기록보존소들의 서비스와 기능 그리고 현황에 관련된 세미나가 개최된다.
3. 과정 중에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이다. 2학년과정과 최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의 수업시간 2/3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1학년 과정과 2학년 과정의 말기에 합법적인 응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3.1 교육 및 교과과정

바티칸 비밀기록보존소의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 전문교육과정’은 교황 레오네 13세(Leone XIII)의 Motu Proprio(1884년 5월 1일)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수준은 박사학위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문교육과정은 1976년 5월 21일에 교황 파올로 6세(Paolo VI)의 새로운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 학위과정’은 2년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매년 10월 1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4월 30일에 종강하는<sup>49)</sup> 본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나 또는 역사와 인문분야의 고등교육기관이 발급하는 학위가 있어야 하며, 9월이나 또는 과정의 지도부가 결정한 날짜에 실시되는 라틴어 필기시험(간단한 고문서 원본을 라틴어에서 현대어로 번역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 이외에도 지원자에게는 추천서(Cardinale Archivistica di S.R.C.에게 보내짐)가 필요한데, 지원자가 성직자인 경우에는 상급자(Ordinario 또는 Superiore)의 소개서가 필수적이다.<sup>50)</sup>

본 과정에서 교수되는 내용은 다른 교육과정들의 그것에 비해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서 독립된 영토단위와 영적·세속적 권력을 행사하였던 관계로 과목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교육내용을 추구하고있다.

필수과목으로는 기록관리학, 필사본학(Codicologia), 일반 고문서학, 교황청 고문서학 그리고 라틴 고서체학이 있는데, 첫째에는 일반 고문서학과 라틴 고서체학이, 두번째 해에는 기록관리학, 필사본학 그리고 교황청 고문서학이 강의된다.

그 이외에도 수업은 강독실습과 구두를 통한 이론연습이 있으며 문장학, 인장학, 장식문자의 역사(Storia della Miniatura), 교황청의 역사(Storia della Curia) 등과 같은 인접분야 또는 보조학문들에 대한 교육도 선택적으로 실시된다.

시험은 과정중인 여름과 가을 그리고 이듬해 여름에 실시된다. 시험응시자격으로는 수업의 2/3출석과 실습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과목에 따라 3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구두시험이 실시되며 합격에 필요한 최소의 점수는 18점/30점이다.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학위를 획득하기 위한 최종시험은 다음과 같은 과목별 시험으로 진행된다.

49) 수업일과 수업시간은 공고되며 매년 작성되는 수업시간표는 적절한 시기에 교육과정의 게시판을 통해 통보된다.

50) 본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서는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전문교육과정이 지원자의 학위를 평가하여 수용을 결정하면, 수강생들은 등록을 위한 절차로서 2장의 명암판 사진과 개인신상명세서와 함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첫째, 라틴 고서체학과 필사본학에 대한 필기시험은 수강생들의 강독능력, 고대필사본에 대한 서술력, 서체에 대한 인식능력 그리고 시대와 유래지에 대한 풍부한 학식을 시험한다.

둘째, 고분서학의 필기시험은 고문서학적인 비평과 날짜서식 그리고 요약문 작성 이외에도 중세문서를 이서하는 작업으로 실시된다.

셋째, 각 과목의 강의내용에 대한 구두시험이 실시된다. 각 필기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5시간, 그리고 구두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이다. 최종시험의 성적은 5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데, '고서체학, 고분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학위를 획득하기 위한 최소점수는 30/50점이다.

## 5 결 론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교육은 현장실습을 통해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기록물 전체에 대한 관심에 앞서 각각의 문서에 대한 친화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기록관리의 고유모델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한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산교육의 한가지 실례로서, 기록관리현장에서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발상은 역사적으로 해당지역의 독특한 발전과정을 증언하는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고유한 특성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다양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이탈리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통이 반도의 역사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기초로 성립되었다면, 이 또한 우리의 기록관리를 위한 미래의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의 9개 도에 가칭 '국립(또는 도립)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기록물관리정책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그 상징인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은 지역기록문화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탈리아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탈리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역사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계획된 반면, 업무 및 행정기록물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물의 생산에서 영구보존에 이르는 기록물의 전체주기를 고려할 때, 영구보존의 가치를 가지는 역사기록물의 정리방식으로 원 질서, 즉 생산당시에 부여된 최초의 질서를 존중하는 원칙이 채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업무 및 행정기록물에 대한 관리체제와 선별된 이후 역사성을 획득하는 역사기록물의 관리체제는 일관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업무 및 행정기록물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의 부족은 결코 역사-문화적 가치에 비해 기록물의 행정적 가치가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리대상으로서의 기록물 대부분이 역사기록물의 범주에 속하는 국립기록보존소를 배경으로 업무 및 행정 기록물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리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행정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은 교육내용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으며 여러 학문분야의 협력이 가능한 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학의 기록관리학 교육이 기록물관리법으로 보장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17개 국립기록보존소를 배경으로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가 역사기록물관리를 기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탈리아에서 대학의 기록관리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이 역시 이탈리아 국립기록보존소들이 교육과 이론보다는 기록관리의 일선에서 활동할 인력을 양성하는데 치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

셋째, 기록관리 전문교육에서 문서들, 특히 역사문서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위한 고문서학과 고서체학이 기록관리학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자들을 후자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현대기록관리의 흐름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고문서학과 고서체학은 기록관리를 위한 필수과목으로서 역사기록물을 정리하는 작업에서는 여전히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현대기록관리는 각 문서들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전체기록물 관리라는 전통적인 사고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탈리아 기록관리학 교육이 고문서학과 고서체학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과거사 연구가 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전문가와 역사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을 공통분모로 하는 역사연구의 방법론은 자연, 거시사적 연구보다는 각 지역이나 소단위 연구주체의 독특한

역사발전상황을 존중하는 미시사적 연구방법론이 정착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기록보존을 위한 전통은 역사연구의 전통적인 방법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은 방법론차원에서 우리의 교육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1시간정도의 구두시험과 5시간 정도의 필기시험 그리고 기록보존소에서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은 결코 익숙하지 않은 방식들이다. 더구나 국가의 기록물관리가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관행상 현장교육의 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기록관리와 가장 이질적인 부분은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정책이 각 지방의 특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관리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기록관리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전국의 중앙 및 지방의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문서들의 선별 및 이관 그리고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최근에 지방기록물에 대한 자체관리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지방자체체를 존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기록보존소의 업무가 -이미 초기부터 예견되었던- 과포화상태에 이르러 업무마비상태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현실에서 이미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 분류, 정리된 지방공공기관들의 주요문서들은 생산기관과 열람인 모두에게 열람과 활용의 차원에서 더 큰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아울러 전산화작업을 통한 정보서비스의 대안도 기록물의 증가, 지속적인 전산화를 위한 인적, 기술적 자원의 확보, 기술발전의 빠른 변화 그리고 지속적인 예산확보의 문제로 인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가 안고있는 또다른 문제는 국가의 기록관리가 기록관리학의 입장보다는 역사, 문헌정보, 교육학 등과 같이 기록물을 연구대상의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인접학문분야들의 전공자들에 의해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주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대목은 '기록물을 관리할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기록물의 입장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기록물의 다양한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의- 의미와 가치까지도 훼손시키지 않을 방식으로 이들을 책임질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탄력적인 사고를 가진 기록관리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러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이들이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신념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 정하. 1999. “현대 기록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기록관리와 정보학, 기록보존소와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 22권 제 3호(통합 76호), 173-206.
2. Elio Lodolini. 1998. *Archivistica, Principi e problemi*, Franco Angeli, Milano, pp. 291.
3. Giovanni Vittani. 1918. *Le scuole degli Archivi di Stato*, in <<Gli Archivi italiani>>, 99-100, 135-145.
4. Antonio Panella. 1918. *Le scuole degli Archivi di Stato*, in <<Gli Archivi italiani>>, 55-71.
5. Ernst Posner. 1941. *European experiences in training archivists*, in <<The American Archivist>>, IV, 26-37.
7. Johannes Paoritz. 1953. *Die Archivschule Marburg/Lah*, <<Archivum>>, III, 61-75.
8. Giustiniano degli Azzi. 1913. *Gli Archivi della storia d'Italia*, vol. VIII, Rocca San Caschano, Cappelli, 1-66.
9. Clemente Lupi. 1875. *Gli Archivi e le Scuole paleografiche in Francia e in Italia*, in <<Nuova Antologia di scienze, lettere e arti>>, a 10°, vol 28°, n.3, Firenze, 596-637.
10. Giulio Battelli. 1953. *La Scuola dell'Archivio segreto vaticano*, in <<Archivum>>, III, 45-49.
11. Paola Carucci. 1994. *Place de la formation dans le developpement de la prifession*, in <<Archivum>>, vol. XXXIX, 487-495.
12. Aurelio Z. Tanodi. 1958. *Notas sobre archivos y archivologia*, in <<Revista de humanidades>>, a. I, n. 1. 1-25.
13. Maria Jesus Alvarez-Coca Gonzalez. 1994. *La Camara de Castilla: Secretaria de Gracia y Justicia e El Consejo de las Ordenes Militares*, en <<Cuadernos de Historia Moderna>>, n. 15, Madrid. 279-296; 297-323.
14. Bertrand Joly. 1986. *Les archives contemporaines ont-elles un avenir?*, in <<La

- Gazette des archives>>, 185-193.
15. Elio Lodolini. 1987. La guerra di indipendenza degli archivisti, in *Miscellanea Carlos Wyffels*, 269-293.
  16. Richard C. Berner. 1983.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 historical analysis*,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7. William J. Orr. 1981. Archival training in Europe, in <<*The American Archivist*>>, 44, 27-39.
  18. Ruth W. Helmuth. 1981. Education for American archivists, in <<*The American Archivist*>>, 44, 295-303.
  19. Roy Schaeffer. 1994. From craft to profession: the evolution of archival education and theory in North America, in <<*Archivaria*>>, n. 37.
  21. Karl Georg Faber(Münster). 1983. Cogito ergo sum historicus novus, in *La teoria della storiografia oggi*, Goethe Institut. 215-222.
  22. Arié Arad. 1982.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and archival methodology, in *MMArchivum*>>, XXIX, 182-186.
  23. Robin Wyle. 1995. Student Archivistics: the contribution of Master of Archival Studies theses to archival professional literature, in “*Archivaria*”, n. 39, 96-107.
  24. E. Lodolini. 1995. *Archivistica, Principi e problemi*, Franco angeli, Milano. 463.

(학술발표 원고접수일: 2000. 10. 31 / 발표후 수정원고 접수일: 2001. 2. 5)